

학생 웃게 하는 '학교의 변화'

자신감·꿈 키우는 교실

광일고 재능 계발 '꿈교실' 운영
진로박람회 열고 멘토 초청도
1년새 기초학력 미달 절반 ↓

광일고는 광주지역 학부모들 간 '기피 학교'로 알려져 있었다. 신입생(2013~2016년)의 30%는 중학교 때 7일 이상 결석했던 학생들이었다.

중학교 내신성적을 토대로 한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선(2017학년도 94.03%) 안팎의 학생들이 상당수다. 일반계고에서 밀려난 거칠고 성격 나쁜 학생이 적지 않아 학교 분위기도 '모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랬던 광일고가 달라졌다. 광일고 3학년 293명은 한양대, 명지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10명)을 비롯, 전남대와 조선대 등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3학년(334명)의 87.7%나 된다.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학습 부진아)들도 급감했고 중도 탈락율(2014년 14.4% → 2016년 6.1%)도 현저히 줄었다. '기본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광일고의 변화는 교사들이 주도했다. 우선, '광일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동기 부여 및 성적 향상을 이끌었다. '꿈교실'은 야간자율학습을 활용해 진행했던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교과에 대한 보충 학습 뿐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멘토



광주 광일고가 교사들의 노력으로 달라지고 있다. 광일고가 운영중인 '명상 숲 가꾸기'와 벽화구미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광일고 제공>

로 초청, 꿈·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진로진학박람회도 3년째 열고 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로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만하다. 학교는 클리닝·기타 및 공예교실 등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명상 숲(1200㎡)을 가꾸도록 했고 야외 음악회와 전시회 등을 통해 거칠었던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입 시스템이 '수능'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중심으로 바뀌는 데 주목, 교사들 주도로 2014년부터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대입원서지원', '모의면접' 테스트코스를 꾸렸고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시로 상담을 했다.

학교 전체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무력했던 아이들은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학교를 멀리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학교 담장안으로 이어졌다.

당장,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학습 부진아) 수도 급감했다.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에 머물렀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낮은 학생들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15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75.4% ▲수학 64.5% ▲영어 78.9%에 달했지만 지난해 ▲국어 20.2% ▲수학 9.6% ▲영어 25.1%에 불과했다.

조영은 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학제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바꾸는 '긍정 바이러스'

서진여고 '성찰 프로젝트'
지각·결석 없는 반 간식 쓰기
학교 흡연 180명→1명 급감

홍북학원 산하 서진여고는 '학력'으로 인정받는 학교는 아니다. 학교 분위기도 '면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생들은 특하면 결석하기 일쑤였고 학교 화장실은 담배 연기가 사라질 줄 몰랐다.

이랬던 학교가 달라졌다. 시도 때도 없던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정해졌다. '연간 60일 이상 결석이면 퇴학'이란 규정에 따라 한때 150명에 달했던, 중도에 그만둔 자퇴자가 50명 수준으로 줄었다.

임은택 서진여고 교장은 "교사들 중심으로 학교생활지도 프로그램인 '성찰프로젝트'를 운영한 효과"라고 자랑했다.

우선, 서진여고는 교육부가 지정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를 집중지원학교로 선정,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측은 지각·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 시간씩 이른바 '성찰'교실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잘못된 행위로 성찰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는 학년·교실에 대해서도 간식 등을 제공하며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했다.

자신들의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데, 또래 친구들이 자신 때문에 괜한 피해를



서진여고는 최근 '성찰교실'이라는 학교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진여고 학생들. <서진여고 제공>

■ 서진여고 취업률 추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하면서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당장, 학교 내 흡연으로 180명(2014년)이나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 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단 한명에 불과해 학교 내에서

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학교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 학생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 분위기도 바뀌고 '긍정 바이러스'가 교내로 번졌다.

지난해 4월 10.8%던 취업률도 상승, 올해 들어 27.8%로 뛰었고 정원을 채우기 힘들었던 인문계열(보통과) 학과들도 올해 목표치를 재했다.

서진여고측은 지난해 설립자 이용하씨의 반대로 무산됐던 일반계고 인문계열 폐지하고 경영정보과 대신, 호텔외식조리과를 개설하는 등 학교 개편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첫 학기 낭비 않도록...알짜배기 '대학 OT'

지역 대학들의 입학식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하면서 소속감을 높이는 데 신경쓰는 분위기다.

호남대는 27일 오전 문화체육관에서 1600여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알짜스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입학식장에 신입생 이름·학과가 표시된 '지정좌석제'를 도입, 대학 소속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학생활 안내 및 설계프로그램인 '알짜스쿨'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알짜스쿨'은 막연하게 느꼈던 학과와 전공을

알고 남은 대학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이 허투루 대학 생활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는 3월 7일까지 대학 및 학과·동아리 소개, 진로 설계, 대학 공부법 안내 등 신입생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총정리 프로그램' 방식으로 꾸려진다.

학교는 해당 기간, 신입생들이 호남대에서 발행하는 쿠폰(1인당 5000원 상당)을 갖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동신대도 27일 학교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동기유발 캠프'를 운영한다.

선배들이 멘토로 참여,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간, 동기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주대도 지난 23일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빛나는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비전 찾기 특화 프로그램인 '위 프로젝트'(We Project)를 동시에 진행중이다. 학교측은 다음달 3일까지 동문특강, 비전특강, 수강신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이해도를 높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남부대도 28일 입학식에 맞춰 대학 국제수업장에서 다이버전 선수들의 다이버전 시연을 진행한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대 '알짜스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들이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교육단신

학생교육문화회관 '성인강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3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할 '상반기 성인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영어회화교실 ▲서예교실 ▲맛글씨 ▲캘리그래피 ▲문인화교실 ▲한글교실 등 5개 강좌로,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수강생 모집

광주보건대 평생교육원은 다음달 말까지 산림치유지도사(2급)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일 개강에 매주 토요일 이론과 실습으로 158시간을 진행한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마을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